

끝없는 기도의 응답 ❀

한국대학생선교회의 총재인 김준곤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70년대 초 사랑방 운동을 하면서 몇 천만원의 예산이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전국 1만 4천여 부락에서 사람들을 모아 훈련을 시켜야 했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안고 미국으로 건너간 목사님은 국제 총재인 빌 브라이트 박사를 만나 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별 소용이 없었습니다.

도울만한 사람을 소개해달라고 했지만 더 이상 가능한 사람이 없다며 자리를 피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루는 작정을 하고 다시 빌 브라이트 박사를 만나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럼 내가 하나님의 보증수표를 드릴까요?” 라는 말에 나는 좋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요한일서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보증수표가 아니냐고 했습니다.

나는 실망했습니다.

그러나 곧 ‘아! 그렇구나. 어쩌서 나는 사람을 믿는가?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한가!’라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일이 있던 지 열 나흘이 지난 후에 은행에 후원금이 들어왔습니다.

나중에 안 사실인데, 빌 브라이트 박사는 설교를 하다가 자신의 경험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는 성경을 가르칠 줄 알면서 자신에게는 가르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사실은 너무 돈을 달라고 조르는 바람에 피할 생각으로 말씀을 읽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으로 인해 은혜를 받았으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설명했다고 합니다.

집회가 끝난 후 어느 실업인이 “내가 그 이야기를 듣는 동안 꼭 이 말을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그에게 돈을 들려서 보냈습니까?”라고 묻자 “사실은 말만해서 보냈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그럼 내가 돈을 내겠소.”

이렇게 해서 후원금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려고 하면 못하실 것이 없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단순히 믿고 구하십시오.

<기도와 경건 / 김준곤(생명의 삶 2002년 1월2일)>

❀.....여러분의 가장 깊은 한숨을 아시는 그분을 만나십시오. 「더 깊은 묵상」 제공